



전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도 제1차 사회적경제위원회

지역단위 생태계 구축

우호적 시장여건 조성

혁신역량 구축 등 목표로

126개 관련사업 발굴

전북도는 19일 제1차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정무부지사)를 열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향후 5년을 책임질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도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민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전년전북, 사람을 향하는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 생태계 구축, 우호적

시장여건 조성, 사회적 혁신역량 구축, 안정적 개별조직 및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더불어 4대 중점분야 12대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관련사업 126개를 발굴했다.

먼저, 기본역량 구축과 관련해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강화, 지역단위 실행력 강화를 통해 사람→조직→연대→지역으로 이어지는 실행 역량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사회적경제가 전라북도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기업 및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시범적으로 설립,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민·관 네트워크 협력체계인 5개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의 민·관이 모여 정책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을 확대하고, 사

회적경제 청년혁신가를 양성하여 사회적경제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등 취·창업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역량 강화에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 내실화, 상품·서비스 고도화, 공공구매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상품화→유통·판매' 등 비즈니스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에는 전북디자인센터와 연계하여 제품 디자인 개발을 신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시설·장비 등 인프라 지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전북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성장기업을 4~5개소를 선정·지원하며 올해는 시군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시·군 지역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전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공공기관 의무 구매율(5%)을 달성하기 위해 도와 출연기관은 물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공공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장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우체국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활동기반 강화와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기본이 되는 금융, 공유자원, 지역혁신거점을 촘촘히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전북형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시범마을 조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활성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하고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사회적 실천기반을 확산하려 한다.

도민 공감대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북 공정무역 리빙랩 운영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경제가 방방곡곡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어려운 화훼농가 도와요’

송하진 도지사,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로 조용식 전북청장·최창학 LG공사 사장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고 경기침체 극복 의지를 다지는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이 전북에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명을 받아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다음 참여자로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과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지명하며 도내 주자들에게 바분을 넘겼다.

송하진 지사는 19일 도 접견실에서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하루빨리 회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동참 취지를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화훼농가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활용 등 철저한 예방으로 대응하되 너무 위축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전라북도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화



꽃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

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꽃 소비 촉진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또 도내 화훼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훼재배 농업인들에게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용자, 금리1~2%, 2년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은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대학 기숙사에 들어오는 유학생 발열 검사

를 마련하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한 유학생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학교 개강을 앞둔 19일 전북대학교 기숙사 입구에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생활관 입주 접수처와 코로나19 임시 진료소를

코로나19 지역감염 선제대응 ‘총력’

전주시, 대학 개강시기 맞춰

중국인 유학생 지원 대책회의

공항 이동 과정부터 숙소 생활

이르기까지 관리체계 강화

전주시가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는 공항에서부터 이동 과정, 숙소 생활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을 차단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19일 김승수 시장과 완산·덕진구청장, 실·국장, 과장, 35개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는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항 대기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대학들과 함께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항에서 거주지까지의 이동 대책을 공동 추진하고,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공동상황실 운영 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학생들이 거주하게 될 대학 기숙사와 대학가 원룸 등에 대한 상시적인 보호체계를 갖춰 코로나19가 지역사회와 대학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학생들의 거주지와



전주시는 19일 김승수 시장과 완산·덕진구청장, 실·국장, 과장, 35개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회의’를 가졌다.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원룸 등 임시차설을 파악하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김 시장과 김선희 전북대 교학부총장과 김갑룡 전주대 교육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4일 전주지역 대학들과 긴급회의를 가진 뒤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에 대한 밀도 높은 관리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많은 중국 학생들이 거주하는 대학가 주변 등에 대해서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또 중국인들이 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어 상담안내서비스(063-281-2988)를 제공하고, 중국어 가능 인력을 확보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검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의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큰 꿈을 품고 전주에 온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따뜻하고 시려 깊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현재 전북대와 전주대, 전주비전대 등 3개 대학에 1890명이 재학 중으로, 현재 1000여명 정도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개강을 앞둔 이날 말 대거 입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자

